

<선지 구성 원리>

오르비 강사 : 유대종

<선지 구성 원리 - 축약해설>

축약이란? 앞에서 언급하여 드렸듯이, 지문의 두 개의 문장, 혹은 그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선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문장과 부수 문장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선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전제들이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선지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세부 정보 문제로서 ㉠과 ㉡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역시 문장들의 결합이며,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것’을 묻는 문항 역시 지문의 문장과 보기의 문장의 결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문제가 고난이도일수록 문장 결합이 잦으며, 문단간 유기성이 강조되는 현행 수능의 경향(2014~2015)으로 볼 때, 문장 결합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문장 결합은 특히 지시어와 논리력을 함께 길러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2013 수능>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꼭)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o,x)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o,x)

②번과 ③번 선지의 문장은 모두, 위 지문의 두 문장이 결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 그럼에도 국가가 이(V) 제도들(사적 연금, 공공부조) 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제도들에서 이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사적 연금, 공공부조**입니다. 이것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니, 당연히 ②번 선지는 지문과 잘 대응된 선지입니다. ③번은요? 공공부조와 공적 연금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니 개연성 있게 추론해 보면, 공공부조를 폐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번 선지의 답은 o, 3번 선지의 답은 x**입니다!

<2014 수능>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 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o,x)

자, 다 풀어보셨나요? 3번 선지는 지문의 첫 문단 첫 번째 문장의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라는 절과,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문장을 연결해야 하는 선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우리는 ‘평행론이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평행론의 견해를 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실제로 평행론 자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육체적 사건, 정신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문장 결합이 한 문단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의 답은 o입니다!**

<2013 수능>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V 인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 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⑤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o,x)

이 선지는 뉴앙스 유무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결합이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문의 첫 문장인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에 처음인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라는 절을 합쳐 보세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무시된답니다. 인력이 거리로 인해 무시가 될 정도로 약해진다면,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은 당연히 약해지겠지요. 아, 그렇다면 거리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얘기한 선지와 상관있다고 얘기한 지문은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로, 답은 바로 X입니다.**

<2013 수능>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V삽입 = 아무리 관찰하여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발견될 수 있는 이러한)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o, 그렇지 않다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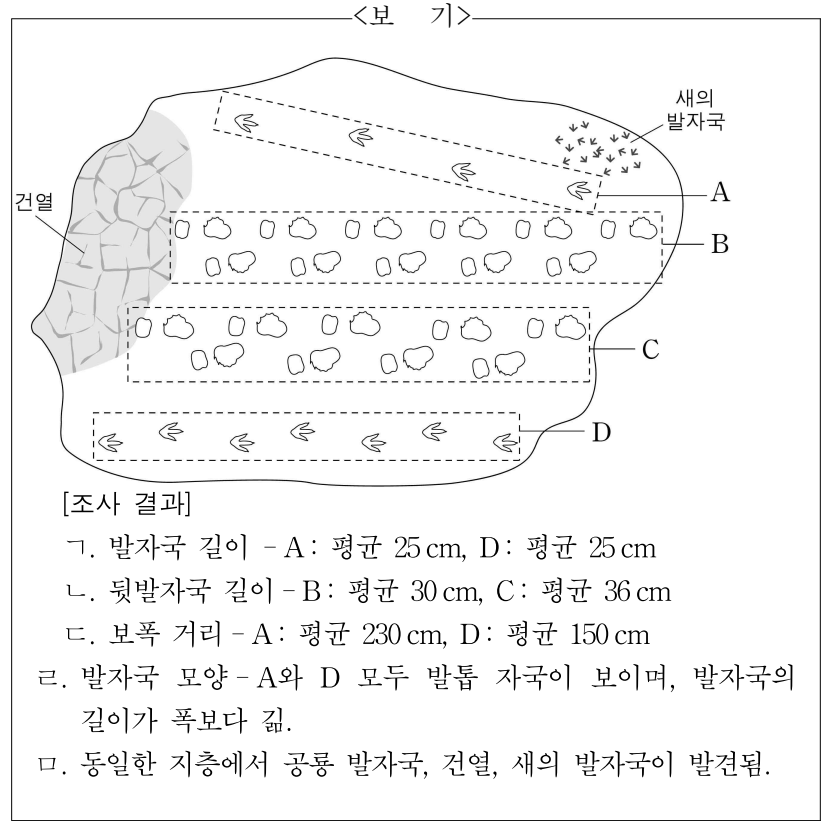
㉤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o,x)
<문장 결합>

5번 선지와 대응하는 지문의 문장은 2문단의 '그러나' 이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문장에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한 까마귀들 중 검지 않은 까마귀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의 없는 새로운 지식'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요?(추론을 통한 어휘 변환) 그 다음 문단에서도 "포퍼는 (이러한 까마귀 이야기와 관련된)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5번 선지는 맞는 정보입니다. 답은 이!

<2009 수능>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질 자국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 건열: 건조한 대기로 인해 땅 표면이 말라서 갈라진 것.

※ <보기>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 위 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o,x)

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맨 뒤에 용어 설명 부분, 즉 날개 부분을 읽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날개 부분과 결합한 선지도 자주 등장하니까요. <보기>에 지층을 보니 건열이 있네요. 건열은 '건조한 대기로 땅이 갈라진 것'이라고 지문의 날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지요? 결국 이 문제는 <보기>와 지문을 결합하여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

<2006 수능>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열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

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다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융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 ② 태양 빛은 이글루의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O,X)
- ⑤ 이글루의 얼음과 온실의 유리는 방출되는 복사파를 차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O,X)

2번 선지와 대응하는 지문은 위 글에 첫 문단 맨 처음입니다. 보시지요.

a.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b.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c.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a문장과 b문장, c문장을 결합하면 어렵지 않게 태양 빛을 통해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이글루가 지면보다 많기 때문에 이글루가 지면보다 더 따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뉴앙스 양질 유무 파트(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문장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축약[문장 결합]파트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2번 선지는 o!**

자, 한편, 5번 선지와 대응하는 지문은 첫 문단 마지막입니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온실 효과와 이글루는 모두 복사파를 유리와 얼음으로 각각 차단합니다. **5번 선지도 정답은 o!**

<2011 수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①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 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포인터:	저장소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0000:	산 이름 다음 포인터
1000:	백두	1000:	백두 1008
1001:	설악	1002:	ⓐ ⓑ
1002:	지리	1004:	지리 1006
1003:	한라	1006:	한라 ----
1004:		1008:	설악 ⓒ1004
⋮		⋮	

<그림 1> 배열

<그림 2> 연결 리스트

①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은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와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 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O,X)

1번 선지와 대응되는 부분은 2문단에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저장된)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건 배열만의 특징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2문단의 배열 파트에서는 물론이고, 3문단의 연결 리스트에서도 1번 선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문단을 보실까요?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연결리스트에서도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려면 포인터를 사용해야겠지요? 1번 선지는 결국 **o!**

<2003 수능> 하사(下士)*는 오곡을 보면 중국에도 있는지를 묻고, 중사(中士)*는 중국 문장이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상사(上士)*는 중국에는 이학(理學)이 없다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중국에는 배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이 큰 천하에 무엇인들 없겠는가? 내가 지나가 본 곳은 중국의 한 모퉁이인 유주(幽州), 연주(燕州)이고, 만난 사람도 문인 몇 사람일 뿐이니 도(道)를 물려받은 큰 선비는 실상 보

지 못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못했고 천하의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 중국에는 뛰어난 학자들과 걸출한 문인들이 있는데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학문과 문학을 볼 것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얼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대저 서적에 기재된 것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의미가 무궁하다. 그런 까닭에 중국 서적을 읽지 않는 자는 스스로 금을 굶는 것이고, 중국을 다 오랑캐라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중국에 비록 육상산이나 왕양명 같은 사람들의 학설이 있다고 해도 주자학의 적통(嫡統)은 제대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는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큰 규모와 같게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무릇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예를 다 발휘해도 중국의 물건 하나에 불과할 터이니 서로 비교하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알지 못함이 심한 자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면서,

“그대는 중국 비단을 못 보았나? 꽃과 새, 용 따위의 무늬가 번쩍번쩍하여 살아 있는 듯하며, 가까이 보면 기뻐하는 듯, 슬퍼하는 듯, 모습이 금세 달라진다.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직조 기술이 과연 여기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 하는바, 우리 나라의 면포가 날과 씨만으로 짜여 있는 것과 어떠한가? 중국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은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며, 집은 금빛과 채색 단장으로 꾸렸고, 통행하는 것은 수레이고,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뿐이다. 그 도읍, 성곽, 음악의 변화함이며, 무지개다리, 푸른 숲 속에 은은하게 오가는 풍경은 완전히 그림과 같다. 부인네 머리 모습과 긴 저고리는 모두 옛날 제도 그대로이며 멀리서 바라보면 몸매가 날씬하여 우리 나라 부인네의 짧은 저고리와 폭넓은 치마가 아직도 몽고 제도를 이어받은 것과 같지 않다.”

하였더니 모두 허황하게 여겨 믿지 않았다.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면서, “호국(胡國)을 우단(右袒)**한다.”라는 것이었다.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자는 “의리를 아는 사람이 많기를 원할 뿐이다.” 하였는데, 그러므로 나도 이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 박제가, 북학의 -

* 하사·중사·상사 : 선비를 상·중·하로 나누어 표현한 것.

** 우단 : 한쪽 편을 들.

8. 윗글의 필자가 당시 우리 나라 사정에 대해 지적인 내용으로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

② 과거 시험에서 왕양명의 학설을 주장하면 불이익을 받는다.(O,X)

④ 지식인들이 현재의 연경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O,X)

자, 조금 어휘가 어렵지요? 1번 선지에 대응하는 부분은 4문단에서 찾을 수 있네요.

우리 나라는 사람마다 주자의 학설을 말할 뿐이며 나라 안에 이단이 없으므로 사대부는 감히 육상산이나 왕양명의 학설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찌 도가 하나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겠는가? (육상산과 왕양명의 학설들을) 과거(科擧)로 몰아대고 풍기(風氣)로 구속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지 않고 그 자손마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시험에서 왕양명의 학설을 말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겠지요? 즉, 2번 선지는 o입니다!

4번 선지와 대응하는 부분은 다음 두 문장입니다. 이 문장들을 많이 들 못 찾으시더라고요.

내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어나면서, + (마지막 문단에) 아아,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이 유도(儒道)를 밝히고 이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 고루함이 이와 같으니 오늘날 우리 나라 풍속이 진흥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필자에게 찾아와 중국에 대해 묻는 사람들은 연경 상황에 흥미를 갖지요? 그렇다면 답은 무조건 o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거지가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5살 아기가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즉, 4번 선지의 말처럼 이들이 지식인인 것은 어찌 알죠? 이것은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듯 필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유학을 밝히고, 백성을 다스릴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선지의 정답은 x!

<2012 수능>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o,x)

3번 선지와 대응하는 문장들을 봅시다. 1문단에서 전통적 경제학은 비효율성의 해결로 보조금과 벌금을 생각한다고 첫 문단 처음에 나오지요? 또 하나 2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조금 혹은 벌금과 같은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3번 선지는 o!

10. 흐름을 따라가며 적절 유무를 판단하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② 정서론과 음형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o,x)

자,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2번 선지와 대응되는 지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2번 선지의 정답은 O!

→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V = 정서론, 음형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부어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형론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주었다.(o,x)

3번 선지와 대응되는 지문은 역시 아래에 있고요. 3번 선지 역시 정답은 O입니다!

→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음형론 문단이니, 음형론 관련 음악가이겠지요? 거기다가 바로크 초기!)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음형론의 입장을 지닌)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에 주목)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어마이스터가 실제로 이런 연주들에 주목함, 즉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음)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이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⑤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o,x)

자, 5번 선지는 지문의 이곳과 관련이 있네요.

→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우리 장난 식으로 이런 언어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도 예견되었던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실제로 한슬리크를 통해 일어난 것이지요. 그 한슬리크는 음들의 순수한 결합, 즉 형식적 요소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선지 역시 정답은 O!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

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O,X)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O,X)

자, 2번 선지와 대응하는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문단에 보시면,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한편, 2문단에는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두 문장을 결합한다면, 2번 선지처럼 <논고>에 있는 그림 이론이 논리실증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2번 선지는 이!

4번 선지가 조금 어렵지요? 4번 선지와 대응하는 문장은 다음 두 문장입니다. 3문단 맨 마지막에,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의미 있는 명제 → 경험적 세계 (필요조건) → ??
 ||
의미 있는 명제 → 실재 대상 혹은 사태 →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문맥상 경험적 세계는 실재하는 대상 혹은 사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결국,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겠지요. 4번 선지는 결국 x!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참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으니까요.(사실 이 4번 선지는 뉴앙스

양질 범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15 수능>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

2.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 ③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되겠군.(o,x)

- ⑤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하겠군.(o,x)

3번 선지는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첫 문단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문장은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겠지요?

***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 세포 내 합성(A) or 음식 섭취한 단백질로 얻음(B) or 체내 단백질 분해 (C)**
즉, A or B or C

그런데 지문의 그 다음 문장을 보시지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위 문장에 따르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 (A)는 필수아미노산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결국 다시 논리적으로 구성해보지요.

A or B or C
~A

B or C (필수아미노산은, 음식 섭취한 단백질로 얻거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 생긴 것)

결국 3번 선지는 O입니다!

<2014 수능>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㉔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o,x)

㉕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o,x)

우선, 2번 선지입니다.

(마지막 문단)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숨은 전제) 운동장은 지표이며, 축구공은 물체이다.

(결론)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5번 선지입니다.

(마지막 문단)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숨은 전제)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은, 이동 속력을 가진 물체이다.

(결론)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은 전향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즉, 2번과 5번 선지 모두 정답은 O입니다!

<2007 수능> ㉑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㉒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3. ㉑으로부터 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3번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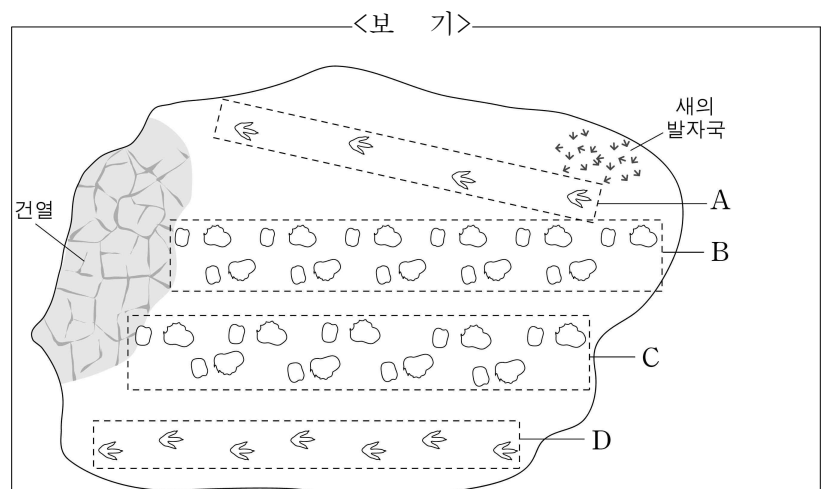
(전제1) 일반 법칙(A) → 귀납 추리(B) (필요조건)

(숨은 전제) ????????????????????

(결론) 일반 법칙(A) → 경험 지식(C)

자, 숨은 전제 칸에는 “B → C”가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들어갈 말은 귀납추리는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3번 선지가 틀렸다면, 즉, 만약 귀납추리가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꾼다면 일반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일반법칙은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 결국 3번 선지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4번 선지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즉 경험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도리어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09 수능> 우선 공룡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낸다.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이들은 대체로 4족 보행렬을 나타낸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세 개의 뾰족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발뒤꿈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인다. 수각류의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를 보인다. 조각류처럼 2족 보행렬을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조사 결과]

- ㄱ. 발자국 길이 - A: 평균 25 cm, D: 평균 25 cm
- ㄴ. 뒷발자국 길이 - B: 평균 30 cm, C: 평균 36 cm
- ㄷ. 보폭 거리 - A: 평균 230 cm, D: 평균 150 cm
- ㄹ. 발자국 모양 - 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길.
- ㅁ.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건열, 새의 발자국이 발견됨.

4. 위 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 유무.[3점]

①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o,x)

<1> A, C의 발자국 종류 판별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 도표 중 C에 가깝죠?

수각류의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를 보인다. → 도표 중 A에 가깝네요?

C = 용각류, A = 수각류

<2> A, C의 초식, 육식 판별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각류 = 초식, 수각류 = 육식

<1>과 <2>를 결합하면,

C = 용각류= 초식, A = 수각류 = 육식

결국 1번 선지는 X입니다. A는 초식인 C와는 달리 육식이니까요.

<2015 수능>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㉔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5.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o,x)

자, 4번 선지와 대응되는 지문은 우선 여기입니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 :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려면(A and B) →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C)

대우 :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C) → 상속성 혹은 보편성을 실현할 수 없다.(~A or ~B)

어? 근데 뭔가 이상하다? 왜요? 4번 선지는 상속-보편성 둘 다 조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럼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명제2 : 상속성이 실현되려면(A) → 보편성이 확보(B)
보편성이 실현되려면(B) → 상속성이 유지(A)

명제2를 통하여 볼 때, A, B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겠지요.

이러한 문장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명제1,2를 통한 결론 :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C) → 상속성, 보편성 모두를 실현할 수 없다.(~A and ~B)

결국 4번 선지는 맞습니다! O!

이렇듯 기본적인 논리력을 갖는다면, 문제를 두루뭉실하지 않고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소 힘들더라도 이러한 논리력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 정리 3. 축약(문장 결합)

선지가 무조건 1:1 대응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여러 문장이 결합되었을 수 있다.

특히 지시어를 찾아 연결하는 연습이 문장 결합의 척도이다.

문단 간 결합은 주로 1문단의 예측 파악을 통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